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률로 명문화 해야”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과 관련해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 묻자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교박 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 및 장소를 놓고 야권이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선 “저도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자택까지 찾아가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랴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의 조사”라면서 “저도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자택까지 찾아가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관해서는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의혹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 관련 (입법) 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보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보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와 당정갈등 없어 채상병 관련 외압 없음 드러나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차질 없게 인구전략기획부 추진단 발족”

윤 대통령은 또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이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급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지의 성과를 이어가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하고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겠지만, 근로 시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또 노동 약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최근 저출생 추세에 따른 인구 비상사태에 관해서는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자율전공 확대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교육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들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9일 의원 워크숍을 위해 영광을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영광버스터미널과 시장을 찾아 군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영광에서 1박 2일 워크숍·곡성에 ‘한 달 살기’ 혁신당,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준비 본격 행보

조국 대표 “호남의 새로운 선택지”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16일 영광·곡성군 재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호남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서 1박2일 일정의 국회의원 워크숍까지 열고, 곡성에 ‘한 달 살기’ 거처를 돌려보는 등 재선거를 위한 ‘기선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혁신당은 29일 영광에서 하반기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어 호남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현재 혁신당은 이들 지역 자치단체장을 뽑는 재선거에 모두 후보를 내기로 하고, 표발을 다지고 있다.

이날 조국 대표는 영광 터미널시장에 도착해 상인과 지역민에게 인사하고 과일과 채소를 직접 구매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조 대표는 상가를 돌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고, 자신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박자에 맞춰 주먹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조 대표는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점 구도를 깨트리기 위해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면서 지지자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의 재보선 출마가 호남 유권자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고, 호남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영광군 영광읍 호텔 디스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워크숍’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호남정치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은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일당독점 구조여서 호남의 유권자들은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하게 되면 생산적인 경쟁을 통해 지역정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범 민주당영이 패배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역대급 범 야권 의석 확보했다”면서 “이는 혁신당과 민주당이 열심히 뛰면서 선거가 활성화되고 경쟁이 벌어지면서 함께 승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보선에서도 이렇게 운영되어야 전국의 지역 정치가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면서 “이러한 경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호남 정치의 발전과 지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어떤 구도가 좋은지 이제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물어야 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영광 재보선 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의원이 “자칫 진보진영이 분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대신이 아니고 지방선거다”면서 반박했다. 그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범민주 진영이 넓어지고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우리 후보와 우리 정책이 민주당 후보보다 더 좋은 후보를 모시려고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 전에 재보선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도 “지금 중부세의 70~80%가 지방교부세로 배부되기 때문에 중부세가 없어지거나 완화되면 영광 등의 지역으로 오는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며 “중부세 완화가 서울의 일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30일에는 곡성군에서 농민 현안 간담회와 당원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역민 점심 배식 봉사 및 원로인사와의 간담회를 여는 등 지역 내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공동 (예술의 거리) 근린상가 경매물건

2024년 9월 4일 입찰진행

[3차] 최저가 1,357,333,000원

(유치권 신고는 있으나 유치권 성립여지 없음)

광주동부경찰서 인근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됨.
식당, 갤러리, 카페 적합

부동산임의경매 : 2024타경 60825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 24-2의 6필지

법원감정가 : 2,423,808,600원
토지가격 : 2,044,445,000원 (구 174.2평)
건물가격 : 379,363,600원 (구 101.5평)

상담문의 · 010-6648-0725